

2026년 주님의교회 표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정1

-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_디모데전서 4:5
-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_로마서 14:17-18

오늘의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2

02 | 제직수련회

2026년 제직수련회를 통해 다시 묻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의 본질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속사람이 아름다운 제직」이라는 말씀을 따라, 외적인 헌신을 넘어 마음의 동기와 말씀, 기도의 기초 위에 서는 섬김의 자세를 돌아봅니다.

03 | 유소년숲 겨울성경학교

‘FRIEND BUILDER’라는 주제 아래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와 어린이영어예배(EM) 아이들은 말씀과 예배, 체험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친구를 세우는 믿음의 삶을 결단했습니다. 예배당과 현장 체험 속에서 자라난 이 작은 고백들이 일상 속에서도 예수의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04 | 부서별 사역자 모집

완벽함이 아닌 마음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세워 갈 동역자 한 사람의 소중함을 전하며 각 부서에서 함께할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2026년, 작은 섬김이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그 자리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5 | 서리집사

신임서리집사 교육 수료 소식을 전하며, 새롭게 세워진 114명의 서리집사들의 고백과 다짐을 함께 나눕니다. 총회 헌법과 성경에 근거해 서리집사의 직분과 역할을 차분히 짚으며, 교회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탱하는 섬김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06 | 2026 제직사역 소개

09

제직은 교회의 각 자리에서 성도와 공동체를 섬기며, 예배와 사역이 건강하게 이어지도록 돕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6~9면에서는 2026년도 제직부서를 소개합니다. 2026년에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기쁨으로 헌신하며,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기둥으로 함께 걸어갑니다.

10 | 주은장학금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스물세 명의 장학생에게 어떻게 삶의 희망이 되었는지를 전합니다. 장학생들의 진솔한 고백과 따뜻한 만남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이어 가는지 담았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이 작은 씨앗이 오늘도 꿈과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 감동의 현장을 만나보세요.

10 | 부임인사

청소년숲 어와나(트랙·저니) 사역을 맡아 새롭게 부임한 장종신 전도사의 인사와 사역의 비전을 전합니다. 흔들리기 쉬운 청소년기의 한가운데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을 나눕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함께 기대합니다.

11 | 십자말풀이

이번 호에는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으며 참여할 수 있는 성경 십자말풀이 ‘데살로니가전서 편’을 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가장 이른 편지의 말씀을 따라, 성경 구절 힌트를 통해 말씀을 차분히 읽고 묵상하도록 안내합니다.

2026 제직수련회

속사람을 단장하며 섬긴다는 것

2026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정'을 세워 가기 위해 우리 교회는 목양위원회 산하 7개 분과, 교육위원회 산하 4개 분과, 선교·구제위원회 산하 5개 분과와 12개의 전문위원회, 3개의 부설기관, 그리고 5개의 찬양대와 남·여선교회 및 여전도회 등 여러 자치회를 통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세워 왔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제직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방향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서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으로 지난 2월 1일 주일 오후,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해 「속사람이 아름다운 제직」이라는 주제로 제직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은 무엇인가를 다시 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속사람을 단장한다는 것

우리는 매주일이 되면 분주해집니다. 내게 맡겨진 교회의 일, 곧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필요한 자리에 서는 것. 분명 귀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 강연은 그 익숙한 헌신 앞에 던져진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섬김을 값지게 여기실까?”

강연의 주제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 3~4절 말씀은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속사람’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꾸미고 옷을 갖추는 것보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지다고 하십니다. 목사님은 제직의 시작을 ‘섬김’에서 찾았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 직분을 구하는 순간, 제직은 이미 방향을 잃는다는 말씀은 제직의 자리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섬김 자체보다, ‘어떤 마음과 방식으로 섬기는지’를 보신다는 말에서 질문의 답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단장은 ‘꾸밈’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강연 내내 반복해서 등장한 비유는 ‘화장’이었습니다. 단장은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일이라는 설명이 인상 깊었습니다. 화장은 본래의 골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얼굴을 더 예쁘게 살리기 위한 작업입니다. 교회의 섬김도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전통과 구조를 무시한 변화는 조화를 잃게 만듭니다.

전통은 낡은 관습이 아니라,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이어져 온 흔적입니다. 익숙함 속에서 왜곡된 전통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변화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분별이다. 이것이 강연에서 말한 ‘살아 있는 전통’입니다.

기초가 없으면 단장도 무너집니다

아무리 정성껏 화장을 해도 기초가 없으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강연은 이를 신앙의 기초로 연결했습니다. 말씀의 생수와 성령의 기름, 다시 말해 ‘말씀과 기도’가 없는 섬김은 언젠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오래 헌신한 사람이라도, 속사람에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은 익숙하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바쁜 봉사 일정 속에서도 예배와 말씀, 기도를 먼저 붙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섬김이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흐트러질 때는, 고치면 됩니다

목사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도 마음이 흐트러지고, 섬기면서 감정이 상하며,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힘을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졌을 때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화장이 잘못되면 지우고 다시 하듯, 신앙도 수정이 필요하다. 인정하고 내려놓고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이야말로 실패가 아니라 성숙의 과정

임을 목사님은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남기고 가야 할 향기

강연 마지막에 남은 이미지는 ‘향기’였습니다. 우리는 결국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에게서 어떤 향기가 날까? 사람 냄새일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일까?

하나님을 위한 섬김은 하나님께 드러질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섬김, 비교와 경쟁 속에서 드러내려는 헌신은 향기가 아니라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향기는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 앞에서 힘을 빼는 데서 시작된다’는 말씀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행보

강연을 마치면서 한 점의 조각상을 소개하셨습니다. 스위스 조각가 Alberto Giacometti(1901-1966)의 청동 조각상 ‘걸어가는 사람(그림, L'Homme qui marche)’입니다. 이 조각상은 뼈빠 마른 인간의 단순한 형태를 하고 있지만, 멈춰 서 있지 않고 앞으로 걸고 있습니다. 사람은 걸기 위해 반드시 한쪽 발을 들어야 합니다. 잠시 균형을 내려놓고, 넘어질 수 있는 불안함을 감수해야 함에도 발을 드는 이유는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선택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이 모습에서 제직의 삶을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직의 섬김은 이미 해온 일에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자리입니다. 힘을 주어 과시하는 걸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힘을 빼고 내딛는 한 걸음. 그 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직의 행보일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

이 글을 마치며,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1. 나는 지금 무엇을 단장하며 섬기고 있을까요? 외모 같은 헌신일까요? 속사람의 헌신일까요?
2. 나의 섬김은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나요? 아니면 나만의 방식에 머물러 있나요?
3. 오늘 한 걸음 내딛는 나의 속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공급받고 있나요?

제직의 직분은 무거운 책임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단장하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각자의 모습 그대로, 그러나 말씀 앞에서 계속 다듬어지는 사람들. 그런 제직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예수의 향기를 품게 될 것입니다.

함줄함울

유소년숲
겨울성경학교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구를 세워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1월 17일(토)과 31일(토),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는 'FRIEND BUILDER' (롬 14:17-18)라는 주제로 겨울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되고,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삶의 중요성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일정은 찬양과 말씀으로 시작되었으며, 아이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본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말씀 후 이어진 프로그램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가는 방법을 체험으로 익혔습니다.

특별히 대예배실에서 영화 '킹 오브 킹스'를 함께 시청하며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영상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과 용서, 섬김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며, 학교와 가정,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Friend Builder'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친구와 가족, 선생님을 위해 중보하며,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팀별 활동과 공동체 활동 시간에는 서로 협력하며 응원하고 격려하는 즐거운 교제가 펼쳐졌고, 예수님의 세족식을 직접 체험하며 배려와 섬김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은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작은 실천을 통해 친구를 세워 갈 수 있음을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영어예배(EM)

어린이영어예배(EM) 역시 'FRIEND BUILDER'(Romans 14:17-18)라는 같은 주제로, 1월 24일(토)부터 25일(주일), 28일(수)까지 겨울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EM 어린이들은 말씀과 체험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신앙과 영어를 함께 성장시키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The Greatest Love' 전시장과 김포공항 롯데몰에 위치한 'Future Ground'를 방문하여,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영어로 배우는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전시를 통해 아이들은 복음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믿음을 언어로 고백하며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Future Ground에서는 다양한 체험 활동과 놀이를 통해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서로 협력하며 배려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아이들은 즐거운 활동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유소년숲 어린이들이 이번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배운 말씀과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학교와 가정,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구를 세우는 'Friend Builder'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훈 목사 / 유소년숲



사역자모집

2026년, 당신의 한 자리를 기다립니다

교회에는 지금도 사람이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는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자리일지 모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품어줄 동역자 한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2026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 자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함글함글

부서	사역 분야	인원	세부 사항	사전교육 및 연락처
영아부 (16~36개월)	교사 또는 보조교사	2명	- 영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반별 모임 진행 및 심방 - 예배 준비 및 세팅 도우미 -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미리 체험하고 싶은 청년 선생님 -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교육에 더욱 열심을 내고 싶은 부모님 - 직관적이고 쉬운 말씀, 찬양을 통해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고 도전받고 싶은 성도 누구나 영아부와 함께 해요!	- 예배 시작 전 교사 경건회 및 세부 진행 상황 안내 - 먼저 반 보조교사로 섬겨주시고, 하반기 4주 출석 후 등반한 가정을 대상으로 새로운 반이 편성되면 담임교사로 섬겨주시면 됩니다. - 부장 : 박수희 권사 (010-3328-5085)
유치부 (6~7세)	담임교사 보조교사	1명 4명	- 예배 전 세팅 및 예배 후 해체 - 예배 전과 교사 경건회 중 아이들 맞이하기 -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기 - 담임교사는 가정 심방과 가정 공지 및 반 담당하기	- 매주 로테이션에 대한 반별 위치 파악하여 아이들 각반 자리로 보내기 - 유치부 물품 위치 및 사용 방법 - 부장 : 이왕희 권사 (010-5678-6463)
아기정원 (15~40개월)	담임교사	2명	토요일 오전 10시 사역 - 봄학기 4주, 가을학기 4주 가족 단위의 영아반을 맡아주실 담임교사	- 매주 교사 경건회 및 학기 전 사전 교사 준비 모임을 통해 교육 - 부장 : 정혜정 권사 (010-4159-8948)
주방부	새벽 준비팀	1명	오전 6시 ~ 8시 재료 준비, 홀 세팅	- 주방 담당 장로, 부장 및 숙련된 사역자가 상세한 설명과 안내와 안전 수칙 교육 - 학생 시절 식당 알바 경험자 대환영 - 부장 : 유정아 권사 (010-7455-2019)
	마무리 팀	8명	- 대식당 · 소식당 의자 정리, 물걸레 청소 - 중정 의자 및 파라솔 정리	
주차안내부	1부 (06:30~08:30) 2부 (08:30~10:30) 3부 (10:30~12:30)	1명 2명 3명	교회 안팎의 각 위치에서 주차 안내 및 보행자 안전 유지	- 매뉴얼 및 필요 의류와 장비 지급 - 안전과 위치별 안내 수칙 교육 - 부장 : 오상훈 안수집사 (010-9075-4305)
어와나 트렉 (중등부) 어와나 저니 (고등부)	교사 또는 보조교사	3명	- 중고등학생 부모역할을 선행학습하고픈 초등학생 자녀 부모님 - 이제는 철들어서 중고등학교 동생들을 잘 가이드할 맘이 든 청년 선생님 환영합니다. - 담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보조교사도 가능합니다.	- 어와나 본부 BT 및 학기 전 트랙 / 저니 교사 워크숍을 통해서 신앙교육 역량향상 - 부장 : 임성훈 안수집사 (010-8885-8257)
외국인 유학생 선교부	교사	2명	- 기본적인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 - 외국인 유학생들을 진심으로 섬길 자세가 되어 있는 분 환영합니다. - 주 1회 저녁 시간에 2시간씩 온라인 수업 진행, 정해진 교재와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행사는 전체 행사가 1년에 4회 있고 담당 학생들을 만나는 오프라인 교제를 장려합니다.	- 부서장이 4주에 걸쳐 주 1회 교사 연수 진행 - 수업에 필요한 자체 준비 및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 - 부장 : 김영화 집사 (010-8417-4767)
시온찬양대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00명	모든 파트,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실 분	- 지휘자의 상세한 가이드와 예배 전후 연습 - 문의 : 심원일 집사 (010-9005-0112)
다문화선교부	총무, 회계, 서기, 교회학교 교사	00명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과 사랑을 국내 다문화가정 이주민을 섬기실 분	- 곤지암 비전교회와 협력하여 사역과 지원 - 부장 : 장동현 안수집사 (010-9046-8752)
통선 대외협력부	우리들학교 차량 봉사	1명	- 탈북청소년대안학교 우리들학교로 봉사자 이동에 대한 차량운전 - 매월 첫째, 셋째주 금요일 10시 출발	부장 : 윤경자 집사 (010-3050-0155)

신임서리집사
교육수료

114명의 새로운 고백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뜨거운 사명의 열기가 가득했던 ‘신임 서리집사 교육’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다. 이번 교육은 소그룹 지원부 주관으로, 지난 1월 18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배운환 목사의 지도 아래 총 114명의 예비 일꾼들이 함께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이들은 직분자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점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마치며 114명의 수료자들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두 번의 교육 과정을 모두 수료한 114명의 서리집사들은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와 교회 사역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청지기로써 첫발을 내딛게 된다.

새롭게 세워진 서리집사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각 소그룹마다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온 성도와 함께 기도하며 응원한다.

함글함글

114명의 수료자

(1교구) 양금순, 황용연 (2교구) 김성희, 박재경A, 박재영A, 손예인, 손인호, 송현정, 신현배, 이은정, 임명자 (3교구) 권미경, 김남호, 김민정, 김용애, 박영란, 박정숙, 서명기, 오미현, 유태연, 유혜진, 이선희, 이주현, 정창원, 허정원 (4교구) 고강덕, 김경구, 김영주, 김윤희, 나정화, 성소라, 안재혁, 오경제, 오준수, 이성원 (5교구) 고선아, 김미경, 김선영, 김성일, 김희선, 남현우, 박순자, 박유선, 서승혁, 신채영, 우길남, 이동근, 임아라 (6교구) 강창순, 강홍수, 김경원, 김수영, 김지민, 유명원, 이상선, 이인선, 이정현, 이희영, 진준호, 한수원 (7교구) 강영석, 김민영, 김용태, 김유진, 김윤희, 김화연, 남유선, 박영진, 백주영, 안민지, 안영수, 원세란, 윤경, 이미선, 이영선, 이영수, 정기웅, 정선미, 정웅모, 정지성, 최금희 (8교구) 강민정, 강연주, 김민관, 김재민, 김정은, 김주환, 김지나, 김지연, 박승규, 박창훈, 배지현, 신은희, 유현정, 이호준, 임승택, 임주호, 정남영, 정덕경, 정효수, 조연주A, 조연주B, 조화영, 최한길, 탁희정, 함효준, 홍나래 (사랑나무) 김희준, 성동현 (청년부) 김아인, 김호세, 신수진, 이세진, 이예모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_ 디모데전서 3:13

신임서리집사

교회를 세우는 부르심, 서리집사

신임서리집사 교육을 마치고 수료한 위 성도들의 이름은 단순한 명단 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부르신 섬김의 동역자들이 세워졌음을 알리는 고백입니다. 서리집사는 교회의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직분으로, 교회의 건강을 지켜내는 기둥과 같은 존재입니다.

총회헌법이 말하는 집사의 직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59조에서 “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임시, 대리당회장 포함)이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서리집사는 바로 이 헌법적 근거에 따라, 당회의 결의를 통해 교회의 공식 사역자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이는 집사의 직분이 개인의 자원이나 추천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 결의와 질서 속에서 맡겨지는 직분임을 보여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본

초대교회는 구제와 봉사를 맡기 위해 일곱 집사를 세웠고(사도행전 6장), 이를 통해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이 조화를 이루며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서리집사의 사역이 단순한 보조 역할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는 사명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막 10:4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리집사는 바로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서리집사의 역할

서리집사는 교회의 여러 사역 현장에서 실제적인 봉사와 협력을 담당

하는 일꾼입니다.

예배 안내, 행정 지원, 부서 사역, 행사 보조, 성도 돌봄의 현장 참여 등을 통해 교회의 사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이는 장차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기 위한 영적·사역적 훈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서리집사가 가져야 할 자세

서리집사는 ‘직분자’이기 이전에 ‘섬김의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를 주장하기보다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드러나기보다 묵묵히 헌신하며,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세워 가는 삶이 요구됩니다.

서리집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리이며, 섬김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직분입니다.

새로운 출발선에서

이번 신임서리집사 교육을 수료한 성도들은 이제 ‘배우는 자리’를 넘어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는 더욱 따뜻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삶의 현장에서 더욱 선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서리집사의 사역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섬김 하나하나가 모여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큰 일이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 귀한 동역자들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섬김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그 섬김 위에 굳게 섭니다.”

함글함글

2026 제직부서 편성

- 공동의회 / 의장 : 김화수 목사

• 제 직 회 / 의장 : 김화수 목사
- 서기 : 조병길 장로

서기 : 정유석 안수집사
- 당회 / 당회장 : 김화수 목사

서기 : 조병길 장로

재정 : 김은성 장로

감사 : 손영익 장로

1. 목양위원회

위원회	간사장로	분과위원회	위원장	교역자
목양	김광일 장로	예 배	박기운 장로	박준범 목사
		음 악	이현식 장로	조연상 목사
		소그룹	임익수 장로	배윤환 목사
		젊은이	최영인 장로	김요한 목사
		시니어	최재경 장로	차승천 목사
		양 육	김광일 장로	이태욱 목사
		봉 사	엄인호 장로	김요한 목사

1) 예배 분과위원회

	부	부장	#	부	부장		부	부장
1	예배부	윤승진,이정우 안수집사	4	성찬부	유범석 안수집사	7	중보기도부	임미희 권사
2	안내1부	김상진 안수집사	5	세례부	오광순 안수집사	8	할렐루야찬양대	이영숙 권사
3	안내2부	손준웅 안수집사	6	새벽기도부	박진희 집사	9	영어예배부	윤현섭 전도사, 박경준 안수집사

2) 음악 분과위원회

	부	지휘자	부장(대장)	반주자(오르간/피아노)		부	지휘자	부장(대장)	반주자
1	호산나찬양대	민태경	김성배 안수집사	이혜정 / 조선희	4	임마누엘찬양대	이명국 안수집사	김성우 안수집사	조현기(피아노)
2	시온찬양대	김현욱	김광수 안수집사	황은지 / 김현정	5	음악지원부		김성수 안수집사	
3	샬롬찬양대	김형수	여인모 안수집사	김성희 / 정이와	6	주오오케스트라	악장 정유경 집사	단장 권상임 집사	

3) 소그룹 분과위원회

	부	부장		부	부장
1	소그룹지원부	이승란 권사	2	은사사역부	윤기선 권사

4) 젊은이(8교구) 분과위원회

	부	부장
1	젊은이사역부	임연옥 권사

5) 시니어(1교구) 분과위원회

	부	부장
1	시니어사역부	배애리 권사

6) 양육분과위원회

	부	부장		부	부장
1	새가족부	김병연 안수집사	2	양육훈련부	이양진 권사

7) 봉사 분과위원회

	부	부장		부	부장
1	봉사부	박성갑 안수집사	4	결혼예식부	유윤실 권사
2	주차안내부	오상훈 안수집사	5	주방부	유정아 권사
3	도서부	권순찬 집사			

2. 교육위원회

위원회	간사장로	분과위원회	위원장	교역자
교육	김낙균 장로	유아	최성이 장로	이윤경 목사
		유소년	신호철 장로	이상훈 목사
		청소년	신성철 장로	김계원 목사
		청년	김낙균 장로	박성철 목사

1) 유아 분과위원회 (유아숲)

	부	담당교역자	부장		부	담당교역자	부장
1	유아숲 교육지원부	이윤경 목사	이은우 권사	5	영아부(하늘씨앗)	이영선 목사	박수희 권사
2	아기정원	김가현 전도사	정혜정 권사	6	유아부(씩트네)	김가현 전도사	송성욱 안수집사
3	유아숲 1부	이영선 목사	지형민 안수집사	7	유치부(답쟁이)	조규완 전도사	이왕희 권사
4	아기부(하임)	유가람 전도사	여진원 안수집사	8	어와나 커비스	조규완 전도사	차 호 안수집사

2) 유소년 분과위원회
(유소년부)

	부	담당교역자	부장(1부/2부)		부	담당교역자	부장
1	유소년부 교육지원부	이상훈 목사	윤상현 안수집사	5	어와나 스팅스	강요한 전도사	송성욱 안수집사
2	유년부(포도나무)	강요한 전도사	송영민 안수집사 / 송태현 집사	6	어와나 티앤티	신다윗 전도사	이정우 안수집사
3	초등부(햇살뜨락)	유익진 전도사, 이상훈 목사	이승훈 안수집사 / 조민호 안수집사	7	어린이 EM	정지인 목사	이윤정 집사
4	소년부(아름드리)	신다윗 전도사	김천식 안수집사 / 정유석 안수집사				

3) 청소년 분과위원회
(청소년부)

	부	담당교역자	부장		부	담당교역자	부장
1	청소년부 교육지원부	김계원 목사	신기숙 권사	4	어와나 트랙	장종신 전도사	임성훈 안수집사
2	중등부(팝콘트리)	주찬양 목사, 오성민 전도사	손상수 안수집사	5	어와나 저니	장종신 전도사	임성훈 안수집사
3	고등부 (비전트리)	이동길 전도사, 박유진 전도사	정희봉 안수집사				

4) 청년 분과위원회
(청년부)

	부	담당교역자	부장
1	청년부	박성철 목사, 김세연 목사, 조수희 목사, 정지명 전도사	최민기 안수집사 / 김학순 권사

3. 선교구제위원회

위원회	간사장로	분과위원회	위원장	교역자
선교구제	서정하 장로	국내선교	정준호 장로	김주환 목사
		통일선교	홍완식 장로	김은선 목사
		해외선교	박석진 장로	이태욱 목사
		전문선교	서정하 장로	김은선 목사
		구제복지	김용규 장로	배윤환 목사

1) 국내선교 분과위원회

	부	부장		부	부장
1	국내선교지원부	권진영 권사	5	협력교회선교부	이주영 권사
2	군경선교부	이성호 안수집사	6	다문화선교부	장동현 안수집사
3	농어촌선교부	천정희 권사	7	기관선교부	이신형 안수집사
4	도시교회선교부	박범석 안수집사			

2) 통일선교 분과위원회

	부	부장		부	부장 / 지도권사
1	통일선교지원부	홍정미 권사	3	너나들이부	김종국 집사
2	하나원부	박찬호 집사	4	통선대외협력부	윤경자 집사

3) 해외선교 분과위원회

	부	부장		부	부장
1	해외선교지원부	이재홍 안수집사	4	선교지역 1부	안정수 안수집사
2	선교기도교육부	김희영 집사	5	선교지역 2부	박재원 안수집사
3	비전트립지원부	김홍섭 안수집사	6	외국인유학생선교부	김영화 집사

4) 전문선교 분과위원회

	부	부장		부	부장
1	기획운영부	박준명 안수집사	5	이미용부	최종경 집사
2	스포츠선교부	서철수 안수집사	6	법조선교부	배태민 안수집사
3	무용부	이춘희 권사	7	의료선교부	홍승호 안수집사
4	사진부	박진현 안수집사			

5) 구제복지 분과위원회

	부	부장		부	교역자	부장
1	구제부	김유석 안수집사	4	사랑나무부	이왕현 목사	김기홍 안수집사
2	호스피스부	최영미 집사	5	장애인사역부	김보람 목사	탁동원 안수집사
3	전화상담부	김숙연 권사				

4. 부설기관

1) 청소년사역원
담당 장로 : 신형섭 장로
담당 교역자 : 김계원 목사

	부	부장		부	부장
1	청사원지원부	박은경 권사	3	반가운학교부	전숙정 권사
2	학원선교부	고영선 권사	4	꿈나무부	이흥모 집사

2) (사)섬김과나눔
담당 장로 : 정상기 장로
담당 교역자 : 차승천 목사

	부	부장		부	부장
1	사무국	이정혁 안수집사	5	유관기관지원부	양혜림 집사
2	생활지원부	소봉순 권사	6	송파교육복지센터	박은경
3	특별지원부	이정은 집사	6	마천종합사회복지관	김선화
4	기획홍보부	최희은 집사			

3) 가정사역원(B.P.C.)
담당 장로 : 고경임 장로
담당 교역자 : 김은선 목사

	부	부장		부	부장
1	가정사역부	김유경 권사	2	가정사역훈련부	김유경 권사

5. 전문위원회

위원회 / 센터	위원장	위원		부장
기획조정위원회	김화수	조병길, 김은성, 김광일, 김낙균, 이현식, 서정하, 박민규		
대외협력위원회	조병길	김낙균, 최재경, 임익수, 김용규, 홍완식, 김계원		(사무국장)
인사위원회	김화수	조병길, 김은성, 김광일, 김낙균, 최재경, 신호철, 박민규		
예산심의위원회	김화수	조병길, 김은성, 김광일, 이현식, 박기운		
미디어관리위원회	임익수	김광일, 신형섭, 신호철, 최영인, 엄인호, 김주환		홍보출판부 : 어진원 안수집사 역사자료관리부 : 정원영 안수집사 디지털미디어부 : 장병남 안수집사
사무국운영위원회	김화수	조병길, 김은성, 김광일, 김낙균, 서정하, 최재경, 임익수, 박민규		(사무국장)
선거관리위원회	서정하	김낙균, 정준호, 김용규, 박기운, 최성이, 최영인, 이태욱		팀장 : 박재민 안수집사
치리위원회	김화수	조병길, 황용환, 유정식, 이현식, 홍완식, 박민규		
상례위원회	상반기 : 김용규 하반기 : 정상기	최성이, 최영인, 엄인호, 신성철, 고경임, 박석진 (사무국장)		상례부장 : 김성배 안수집사
하나님의선교위원회	김화수	조병길, 김은성, 김낙균, 정준호, 홍완식, 김용규, 박석진, 박민규, 차승천		
재정위원회	김은성	계수1부 : 이광실 권사	계수2부 : 서용석 안수집사	재정부장 : 최봉수 안수집사
감사위원회	손영익	김성수 안수집사, 김찬귀 안수집사, 차정숙 권사, 강은주 권사		

* 상례위원회 하임찬양대 : 대장 – 임연옥 권사 / 지휘 – 안명숙 집사 / 반주 – 유혜경 권사, 김혜선 권사

고유자 김영희 김경희 김미성 김석훈 김애식 김종석 김혜선 김홍숙 김희수 박선주 박정은 박혜성 목기숙
최민기 이효두 안경희 안명숙 유혜경 오성자 신말희 이경란 이경미 이두선 이미화 이영숙 이혜영 이효순
임성은 임연옥 장혜정 정루미 조보연 지영민 홍정미 (35명)

6. 기관 및 자치회 회장

기관 및 자치회	회장	기관 및 자치회	회장
여전도회 연합회장	김선미 권사	남선교회 연합회장	임정식 안수집사
1여전도회	최정숙 권사	1남선교회	홍운식 안수집사
2여전도회	김선미 권사	2남선교회	강대수 안수집사
3여전도회	이혜경 집사	3남선교회	김광수 안수집사
4여전도회	최종희 권사	4남선교회	최봉수 안수집사
5여전도회	고선애 권사	5남선교회	김성배 안수집사
6여전도회	김정연 집사	6남선교회	이정우 안수집사
권사회	이민숙 권사	7남선교회	박용좌 안수집사
		8남선교회	지형민 안수집사
		안수집사회	이성옥 안수집사
		장로회	김광일 장로

7. 담당 교역자

교역자	교구 / 부서	주요 사역(위원회)	기타 사역 및 기관
박만규 목사	선임행정	전문위원회	사역총괄, 목회행정, 피택자교육, 자치회(장로회)
이상훈 목사	유소년숲	유소년분과위원회	유소년숲 총괄, 초등부, 어린이제자훈련, 가정사역원(파더와이즈)
배윤환 목사	4교구	소그룹분과위원회 구제복지분과위원회	기획, 상례, 교적, 장애인사역부, 자치회(권사회), 양육클래스, 가정사역원(가정예배학교)
이윤경 목사	유아숲	유아분과위원회	유아숲 총괄, 유아숲 교육지원부, 가정사역원(마더와이즈)
차승천 목사	1교구	시니어분과위원회	(사)섬김과 나눔, 자치회(안수집사회)
박준범 목사	5교구	예배분과위원회	중보기도부, 새벽기도부, 큐티사역, 한절묵상
박성철 목사	청년부	청년분과위원회	청년사역 총괄
이태욱 목사	7교구	양육분과위원회 해외선교분과위원회	새가족부, 선거관리위원회, 자치회(여전도회)
조연상 목사	2교구	음악분과위원회	찬양사역, 세움학당
김계원 목사	청소년숲	청소년분과위원회	청소년숲 총괄, 청소년사역원
김은선 목사	6교구	통일선교분과위원회 전문선교분과위원회	너나들이, 가정사역원 총괄(꿈꾸는3막)
김요한 목사	8교구	젊은이분과위원회 봉사분과위원회	함글함글, 가정사역원(아름다운 부모학교), 자치회(남선교회)
김주환 목사	3교구	미디어관리위원회 국내선교분과위원회	미디어행정(IT/방송/음향), 영상기획 및 관리

전임 교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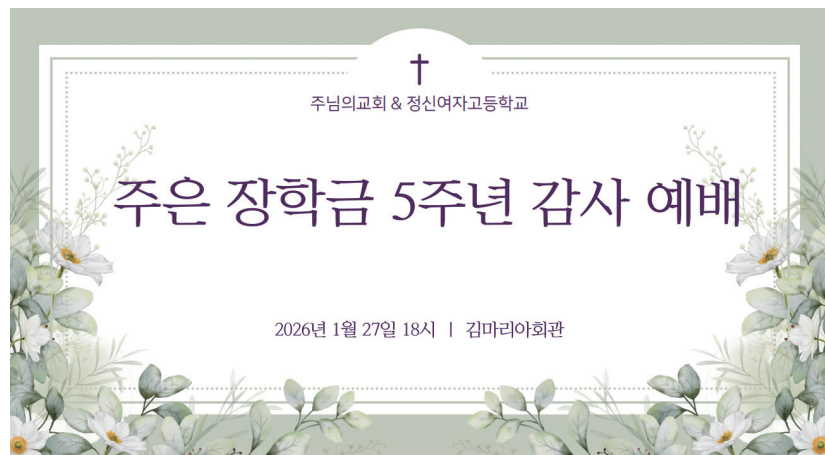
김세연 목사	청년부(행정, 이룸공동체, 임원단, 찬양팀, 워십팀, 연극팀)	박정민 전도사	소그룹(행정), 피택자교육, 젊은이(8교구)
이영선 목사	유아숲1부, 영아부, 아기정원, 유아숲 행정	이영원 전도사	양육(큐티), 중보기도부, 가정사역원(결혼예비학교, 해피맘스쿨)
이왕헌 목사	목양실, 사랑나무, 새가족부, 가정사역원, 하나님선교위원회	이동길 전도사	고등부, 청소년사역원
강요한 전도사	유년 1·2부, 어와나 스팅크, 가정사역원	김보람 목사	장애인사역부, 가정사역원(꿈꾸는3막)
주찬양 목사	중등부, 청소년사역원		

정신학원
주은장학금

주님의 은혜로 피어난 꿈, 주은장학금 5주년

2026년 1월 27일 18시, 겨울바람이 유난히 차가운 저녁이었다. 정신여고 졸업생들이 하나둘씩 설레는 얼굴로 김마리아회관 소식당에 모였다. 조용히 문을 열자 정신여고 선생님이 졸업생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이제는 세월이 흘러 흰머리가 눈사람처럼 새하얀 장로님이 인자한 미소로 졸업생들을 반겨주었다.

이곳은 ‘주은장학금 5주년 감사 예배’가 드려지는 곳. 함께 걸어온 지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기 위해 모인 자리였다.



주은장학금은 2020년 10월, 학원선교의 뜻을 품은 주님의교회 은퇴 장로 한 분이 정신여자고등학교에 2억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면서 시작되었다. 주은장학금은 “주님의교회 은퇴장로가 마련한 장학금”을 줄인 말이며, 동시에 “주님의 은혜”라는 뜻을 담아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이 장학금은 10년에 걸쳐 매년 5명 내외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고3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배움의 길 앞에 선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대학 진학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삶의 방향을 찾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바라는 기탁자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금까지 5년간 23명의 장학생이 배출되었고, 남은 5년도 그 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이날 예배는 ‘뜻을 정해 실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김화수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다.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이 된 1회 장학생부터 새내기 5회 장학생까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은혜로운 말씀에 집중했다.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이 장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맛있는 뷔페 시간이 이어졌다. 그동안 장학생들의 살아온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다.

정신학원과 주님의교회는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세우는 학원선교의 동역자로서, 학교와 교회가 만나는 일상의 현장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양 기관은 학교 안 예배와 신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청소년 신앙교육과 정서적, 영적 돌봄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과 동문 신앙 공동체를 연결하고, 절기 행사와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며 선교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 섬김과 나눔 활동을 통해 복음의 가치를 삶으로 실천하고, 학생과 학교 공동체 안에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정신학원과 주님의교회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섬김과 관계 중심의 학원선교를 함께 이어가며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의 한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졸업할 무렵 아버지를 여의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받게 된 장학금이라 평생 잊지 못할 감사로 간직한다는 학생, 격려에 힘을 내 다시 도전했고 멋진 의학도가 되었다는 학생, 체육교육과에 진학했고 다시 모교로 와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학생, 법학과에 진학해 변리사 시험을 준비한다는 학생, 이제는 간호사로 당당한 사회인이 된 1회 장학생까지,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날 장로님은 깜짝 선물도 준비했다. 참여한 장학생 모두에게 수표 한 장씩 든 세뱃돈 봉투를 나눠주신 것이다. 아르바이트도 미루고 참석한 학생들도 많았는데, 난생처음 받아보는 큰 용돈에 모두들 어리둥절했다. 그런데도 장로님은 여전히 더 베풀지 못함을 아쉬워하셨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걸까.

모든 일정을 마치며 장로님께 다가가 포옹을 하는 학생, 집에서 적어온 편지를 드리거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외치는 학생들로 장로님은 금세 스물세 명 손녀딸을 둔 흐뭇한 할아버지가 되었다. 화려한 프로그램도, 드러내는 이 하나 없는 시간이었지만 자리를 떠나는 모두의 얼굴에는 화창한 봄꽃이 피어 있었다.

긴 세월 동안 주님의교회와 정신학원은 한 가족으로서 학원선교라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동행해 왔다. 교회는 학교를 함께 기도하며 세워갈 공동체로 섬겨왔고, 학교는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학생들에게 정성으로 흘려보내었다. 주은장학금 5주년 감사 예배는 그동안 지나온 교회와 정신학원의 가족 같은 아름다운 동행의 작은 발자취일 뿐이다.

가족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살아갈 큰 힘이 된다. 이 아름다운 학원선교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더 많은 곳에서 들려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은파 집사 / 정신여자고등학교

부임인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로운 만남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님의교회 청소년숲 어와나(트랙, 저니) 담당 전도사로 부임하게 된 장종신입니다. 사역의 시작을 주님의교회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청소년기는 저마다 진리라고 말하는 여러 가치들 속에서 흔들리며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자신의 생각을 키워가는 시기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주님의교회의 청소년숲과 어와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를 고민하며 크리스천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해가길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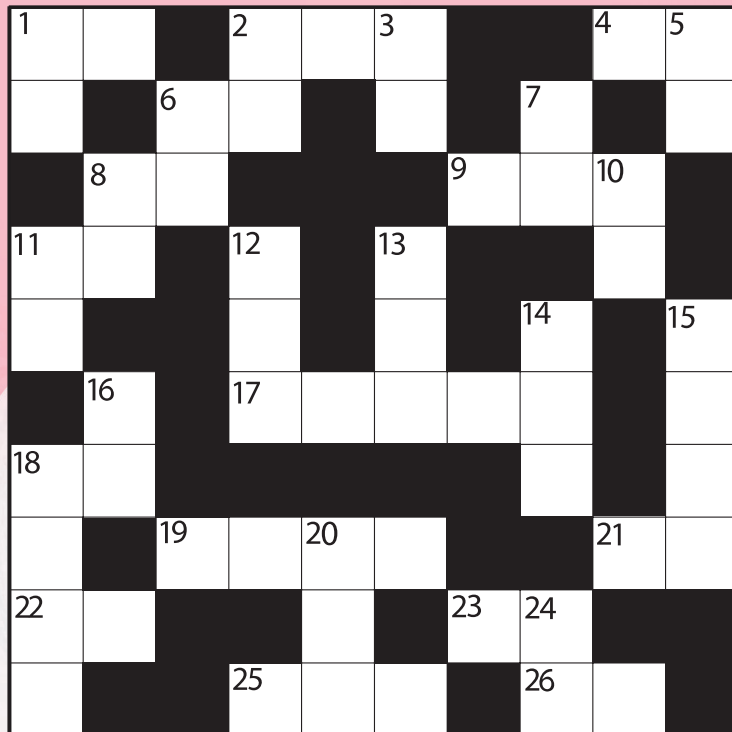
겸손히 기도하며 사역에 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저를 사용하시기를 꿈꿉니다.

장종신 전도사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데살로니가전서 편

이번 호는 신약의 열두 번째 권인 <데살로니가 전서> 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당시 그리스의 항구도시였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이른 연대인 서기 50년 전후에 씌어진 문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골로새서 편 정답



가로 힌트

1. 망하여 없어짐. 대개 나라 또는 인류 등 규모가 아주 큰 집단의 경우에 쓰는 말이다. (살전 5:3)
2. 유다 왕국의 주민, 또는 그 후예를 부르는 명칭. 신약 시대에는 이방인과 구분하여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뜻했다. (살전 2:14)
4. 평안하고 걱정이 없음. 특별한 탈이 없이 평온하다는 뜻이다. (살전 1:1)
6. 생각하고 그리워함. 애뜻하게 생각함. (살전 2:8)
8. 자신의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내세워 보임. 또는 그럴 만 한 것들을 말하기도 한다. (살전 2:19)
9. 적의 공격에서 가슴 부위를 보호하는 갑옷과 같은 단단한 물건. 신약에서는 비유적으로 사용되었다. (살전 5:8)
11.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때.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의 한 단위를 말한다. (살전 5:1)
17. 마게도나 지방의 해안 도시. 지금은 아테네에 이어 그리스의 2번째 도시이다. (살전 1:1)
18.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태도 등을 두루 뜻하는 말. 대개 몸과 구분하는 의미로 쓴다. (살전 2:4)
19.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바울의 전도여행을 함께 했다. (살전 1:1)
21. 괴로움이나 슬픔을 덜어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달래는 것을 말한다. (살전 2:11)
22.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짓. 또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살전 5:2)
23. 사람들 사이에서 들리는 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떠도는 말을 뜻한다. (살전 1:8)
25.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말한다. (살전 2:15)
26. 위험하지 않은 상태. 또는 그런 조건을 말한다. (살전 5:3)

세로 힌트

1. 경멸하는 태도로 보는 것. 깔보거나 낮추어 보는 것. (살전 5:20)
2. 남의 아이에게 젖을 먹여 키우는 사람. 또는 어린 아이를 어머니 대신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살전 2:7)
3. 고난이나 고통을 참고 견딤. 어려움을 견디어 내는 심리적인 태도를 말한다. (살전 1:3)
5. 하늘에서 내려옴. 주로 신적 존재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 오는 것을 말한다. (살전 2:19)
6. 어떤 대상을 지극하게 좋아하는 상태. 또는 그런 대상이나 일을 말한다. (살전 5:13)
7. 어떤 것을 탐내거나 욕심내는 마음. (살전 2:5)
8.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 때로 연인들 사이에서 서로를 부르는 호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살전 5:10)
10. 어떤 점을 분명히 타일러 잘못되지 않도록 이룸. (살전 2:11)
11. 재능이나 실력을 평가하는 일. 비유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한다. (살전 3:5)
12. 루스드라 출신의 전도자. 바울이 신뢰했던 동역자였다. (살전 1:1)
13. 거짓이 없고 참되게. 진정으로. (살전 2:13)
14. 고대 그리스의 마게도나 남단 지역. 수도는 고린도였다. (살전 1:7)
15. 이러하므로. 이런 연유로. (살전 3:7)
16. 어떤 사람이나 사상, 종교적 대상을 따르거나 신뢰하는 마음. (살전 5:8)
18. 발칸 반도의 그리스 북쪽에 있던 왕국. 알렉산더 대왕 때가 전성기였다. 신약 시대에는 로마의 속주로 바울이 전도를 위해 여행했다. (살전 1:7)
20. 어머니의 남편. 가수 인순이, 싸이가 이런 제목의 노래를 불렀다. (살전 3:11)
24. 안부를 묻는 일. 대개 웃어른에게 안부를 묻거나 인사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 (살전 5:26)

2026 항존직 선거 시행공고

- **항존직 선거 일정**
 - 항존직 등 중직 직분자의 추천 투표 : **2026.3.8**(주일) 예정
 - 당회의 공천 투표 : **2026.4.12**(주일) 예정
 - 공동의회 선거 : 1차선거 **2026.5.10**(주일), 2차선거 **2026.5.17**(주일) 예정
- **항존직 선출인원** : 장로 10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20명
- **항존직으로 피택받을 수 있는 성도의 자격**

구분	세례 입교 (선거일 기준)	등록 (선거일 기준)	연령 (선거년도말 기준)	자격 및 성품	세례학당 마감여부 (당회활동가능성)
장로	7년	10년	만40세~65세 미만 1962.1.1~1966.12.31 출생자	성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이 있는 자	○
안수집사	5년	5년	만30세~70세 미만 1967.1.1~1996.12.31 출생자	행위거 목숨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	○
권사	5년	5년	만30세~70세 미만 1967.1.1~1996.12.31 출생자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 있는 자	○

✓ 후보자의 추천 및 공천

- ① 추천투표에 참여하는 중직 직분자 :
 - 항존직(은퇴장로, 사임장로, 시무·은퇴 안수집사, 시무·은퇴권사, 협동장로)
 - 겨자씨 인도자
 - 제직부서 부서장
- ② 공천투표 : 당회원

✓ 공동의회 선거

- ① 선거 참여 자격
 - 선거시행규고일 기준 등록 1년 이상 된 지로서 현재 주님의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
 - 선거시행규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세례, 입교 교인
- ② 피택(선출)기준
 - 장로 : 총 유효 투표자의 2/3이상 득표자
 - 안수집사, 권사 : 총 유효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

2026년 1월 11일
주님의교회 선거관리위원회

마더와이즈

MOTHERWISE

성경적 여성성이란 무엇인가
살아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배울 수 있는 모임

■ 3.17(화) ~ 5.19(화) 오전 10시 (9주) 3층 초등부실
■ 모집기간 | 2/1~2/22 (신청순 35명) **마더와이즈신청QR**

• 자유편 커리큘럼

주차	일시	교육주제
1주 입학식	3.17	입학식, 환영, 65기도, 조별모임
2주	3.24	포도나무의 원리: 생명
3주	3.31	가자의 원리: 문제의 뿌리
4주	4.7	가자의 원리
5주	4.14	가자치기의 원리: 십자가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
6주	4.21	가자치기의 원리: 질라내기
7주	4.28	새벽의 원리: 포도나무에 접붙이기
8주	5.12	새벽의 원리: 새로운 성장
9주 수료식	5.19	말씀의 원리: 성숙을 향해 나아가기 / 수료식

• 문의 | 이윤경 목사 010-9267-3582

11기 자유편

주님의교회

4기 꿈꾸는 3막

'꿈꾸는 3막'은 권리의 말씀이 계시하는
노년에 대한 비전을 이해하는 신앙교육과정입니다.

2026년 4기는 '영성'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3막을 함께 열어갑시다!

• 주 제 영성
• 기 간 **3.12(목) - 4.30(목)**
• 시 간 오전 10:00-12:00 / 초등부실(3층)
• 모집인원 **40명** (선착순)
• 문 의 김은선 목사 010.4773.8186
김보람 목사 010.9303.0072

주님의교회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2026년 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정"

3.6(금) 19:00 ~ 3.7(토) 13:00
소망수양관

이창교 목사
창원상남교회

김태섭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회비 1만원 / 5C세일은행 주님의교회 : 204-20-190253 / 입금자명: 수련회-000

주님의교회

성경에 기초한 비즈니스 미션

강사 **폴킴 Paul Kim** 박사 (GSN 이사)
일시 **2026.2.15, 22** (주일/2주간)
오후 2:30 - 4:30
대상 비즈니스 선교에 관심있는 성도,
기업가, 예비창업가 등(선착순 30명)
장소 3층 초등부실
신청 및 문의 김은선 목사(010.4773.8186)

주관 | 통일선교위원회

하나님의 선교
세미나

2026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생 모집

일시 3.9(월) ~ 5.27(수) 매주 월요일 동명성당의 일로드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있는 모든 성도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교육비 150,000원 (교재비 포함)
주님의 교회 등록교인 (본인부담 50,000원)
등록문의 최영미 부장 010-4361-0527
최은희 총무 010-4116-6468
안내사항 1. 교육수료 후 호스피스 병동이나 가정호스피스 봉사자 가능함
2. [대면교육] 3월9일 개강식/ 5월27일(수) 수료식은 대면으로 진행
장소: 각당복지재단 강당(서울 종로구 경희궁1길 29)
3. [특강] 5월7일(목) 오후2:00~4:00 발반사요법 대면으로 진행 (참여 필수)

주님의교회

각당복지재단

무지개호스피스연구소

교회일정

2/8 (주일) 정기당회
2/18(수) 재의 수요일
2/27(금) - 3/1(주일) 청년부 겨울수련회
3/1 (주일) 성찬주일

알립니다

1. **2026년 상반기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일시 3/6(금) 오후 7:00 ~ 3/7(토) 오후 1:00
장소 곤지암 소망수양관
대상 겨자씨 인도자 및 모든 성도
신청 구글 폼 링크 또는 1층 로비(2/8까지)

2. **성지순례 '모세에서 예수님까지' 모집**
일정 5/17(주일) ~ 27(수)
장소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인원 60명(선착순 마감)
신청 2/8(주일) 1부 예배 후 ~ 2/15(주일)
방법 1층 사무국에서 신청서 작성
문의 이상훈 목사(010.9808.4788)

3. **꿈꾸는 3막 4기 모집**
대상 주님의교회 65세 이상 성도
신청기간 2/1(주일) ~ 2/15(주일) / 40명(선착순)
교육기간 3/12(목) ~ 4/30(목) 오전 10:00 ~ 12:00
신청 김보람 목사(010.9303.0072)

4. **마더와이즈 11기(자유편) 모집**
대상 주님의교회 여성 성도 / 35명(선착순)
신청기간 2/1(주일) ~ 2/22(주일)
접수 게시판 포스터 QR
문의 이윤경 목사(010.9267.3582)

5. **하나님의선교 세미나**
주제 성경에 기초한 비즈니스 미션
일시 2/15, 22(주일) 오후 2:30 ~ 4:30
장소 초등부실(3층)
강사 폴킴(Paul Kim) 박사(GSN 이사)
신청 및 문의 김은선 목사(010.4773.8186)

함줄함울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임익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줄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줄함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주님의교회

십자말씀이 511호 정답자: 정현정 집사(5교구)

십자말씀이와 함줄함울 기사를 읽고 소감을 제출해주시는 분께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십자말씀이는 함줄함울 지면에 답을 직접 쓴 사진을, 기사 소감은 아래한글이나 워드로 A4 1장 이상 분량으로 작성한 파일을 함줄함울 메일(pclhamletter@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이름, 직분, 교구,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교회

